

불자 세상보기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인연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와 가까운 관계의 누군가가 못된 짓을 저질러서 지탄을 받으면 그 관계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로 훌륭한 일을 해서 만인의 칭찬을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기뻐 할 때마다 광고하고 싶지 않은가 말이다. 심지어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닌데도 고행이 같아서,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니까, 같은 직업이어서, 나아가 같은 한국인이어서, 또는 심지어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서 나까지도 자랑스럽거나 부끄럽게 느낀다. 아주 넓은 범위까지 나가면, 그 사람 덕분(또는 탓에) 나 또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거나 민망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본 대지진, 그 후의 장면들

걸 보면 우리는 연기법(緣起法)을 생애적으로 체법 감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참화를 계기로 면식 없는 사람들과 나 사이의 멀지만 가까운 관계를 새삼 느끼게 된다. 생생하게 전해지는 참혹한 현장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고 내 일인 양 마음이 아프다.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감탄한다. 일본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좀 덜 당한 이들은 물론이고 몸소 혹독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까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처신하는 것을 전해 듣고 보면서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사람 됨됨이의 진면목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죽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도 있다. 인격 즉 사람 됨됨이를 가리키는 서양 말 페르소나(persona)라는 개념이 워낙 가면을 뜻하듯이, 별일 없는 평상시에는 적절히 처신하는 절절한 모습을

지어내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다지 절박한 위기라 할 것까지도 아니고 그저 좀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닥쳐도 험사리 본색을 드러내는 이들도 꽤 있고, 특히 절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대개가 그렇게 가까스로 지키던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십상이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참화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 있는 처신은 그것이 그저 체면유지 차원이 아니라 그네들의 됨됨이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임을 확인시켜준다.

자신과는 다른 남의 모습을 보고 이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새삼 돌아보는 것은 개인과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인류 사회와 문화, 문명의 역사를 보면, 크고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대개 다른 사회, 문화, 문명과의 발전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내가 갖추지 못한 남의 좋은 모습은 배우고 반대의 경우라면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다듬는 것이 바로 발전적인 만남이다.

‘해럴드경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1976년 중국 허베이(河北省)성 탕산

(唐山)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시 인구의 20%가 넘는 24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주중 일본대사가 감탄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이런 참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행동할까 걱정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일본인들에게 경탄을 보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지는 이번 사태의 와중에서 일본인들이 보여주는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처신과 남들과 사회 전체를 위한 배려의 성숙한 태도에 대해 “인류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까지 극찬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 은근히 자랑스럽다. 아주 넓게는, 파이낸셜타임즈의 표현처럼 인류 사회의 정신적인 성숙을 실증해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자랑스럽다. 우리도 이웃나라,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자랑스러운 됨됨이를 갖추도록 애써 하겠다는 생각도 절실히 든다. 일본과 참으로 복잡한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돕고자 하는 정성이 거대한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말로 정말로 자랑스럽다.

社說

신심 강요 이전에 비전취야

불교 중흥의 전제로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언제나 단 한가지로 귀결된다. 인재 불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지만 유독 불교계에서 인재 타령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종립교육기관이 이웃종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문제이다. 계율·문화재 등 특정 분야에서 양성되는 인재가 부족한 것도 큰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종립학교를 나와도 불교계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불교계에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인과(因果)를 설명하면서 공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복전(福田)을 닦는 것이니 보수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혹은 보수가 적어도 감내할 것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불자수는 2000만에 이른다면서, 정작 불교NGO단체에서 일할 사람이 없

다. 장기근속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졸 초임 월90~130만원의 낮은 급여가 문제된다. 실무자의 수명이 짧아보니 업무의 전문성·영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불교계의 거의 모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영리목적의 일반기업은 회사 이익에 준해 임금이 결정된다. 대기업의 임금이 높고, 이들 기업으로 고학력의 인재가 모이는 이유이다.

불교계 단체 대부분은 비영리기관이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 낮다. 역량 발휘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출·재가의 벽이 그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재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교계에는 출가자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할 재가자가 더 많다. 언제나 신심에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텐가.

‘내탓이요’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주축이 돼 발족한 시민모임이다. 스님의 열반 후 줄곧 적지 않은 잠음이 들리더니, 열반 1주기를 즈음해서 돌연 이사장 덕현 스님이 잠적했다. 뒤이어 이사장은 사과문과 함께 일괄 사퇴했다.

지난 주, 前 이사 중 한 명이 교계신문에 작성하고 글을 실었다.

글에는 S대 출신 운운하며,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으로 덕현 스님을 몰아세웠다. 자신(이사장)들은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는데 덕현 스님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는 듯 적었다. 어떤 참담한 결과였는지는 적지 않았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비난이었다.

사과문에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앞뒤로 정중히 사과한다”며 발표를 미루던 입장치고는 언젠스이다.

글이 알려지자, 김상사 신도들이 반발했다. 공개적으로 스님을 정신병자로 모는 글도 문제지만, 떠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가자의 출가자에 대한 도리를 굳이 운운하지 않아도 글로 표현한 행위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1990년대 불교계에 ‘맑고향기롭게’가 있었다면, 가톨릭에는 ‘내탓이요’가 있었다. 법정 스님께 참회한다며, 상좌를 정신병자로 몰며 모든 책임을 돌린 맑고향기롭게 前 이사에게 빗바랜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대신, ‘내탓이요’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다.

사부대중 칼럼



가섭 스님 수미산 불국사 주지

봄이 오고 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씨만큼 간절(懇切)하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의 향기가 이처럼 간절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이치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만큼 각 계절마다 풍경과 느낌이 각기 다른 것은 물론 우리들의 기대와 바라는 마음도 제각기 일 것이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삶의 골래와 궤를 같이해 더욱더 계절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동기도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자기질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직면한 중생들의 실상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는 물론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어려서까지 짝이 없는 중생들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투영되어 엄청난 고뇌와 자기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고뇌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태자의 권력과 부 그리고 수많은 인연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는 위대한 포기·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출가를 결심한 부처님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나와 중생들이 영원한 해탈과 열반 즉, 행복과 평화를 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 질문을 갖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생각들은 중생을 연민하는 자비심으로 그 간절함이 더해져 엄청난 고행과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은 바로 중생들을 위한 간절함의 발로이고, 본인에게 가졌던 모든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의 그 누구도, 미래의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고행과 수행의 길을 걸었던 부처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중생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인해 이룩된 역사일 것이다.

중생들이 고통의 세계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에서 출가에

서 열반으로의 삶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간절함은 역사를 더할수록 그 빛이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중생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간절함과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간절함이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함 노력과 누군가를 위해 간절함 기도를 해보았는가는 질문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간절(懇切)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간절함 만큼 이뤄지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다. 간절함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강화를 통해 뜻을 이뤄나가는 의미가 더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간절함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주위를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이다.

간절함 기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그 힘이 강해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간절함 기도가 최선이듯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또한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즈음은 두 가지의 간절함이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처럼 하루빨리 재난구조와 재건이 이뤄지길 바란다. 순식간에 부모형제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실감을 어찌 대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한다.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이라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잔인한 소리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이기적인 간절함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 있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편협한 식견과 나쁜 가치관 간절함으로 승화되면 우리들의 착한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만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종교만이 최고라고 두 손 모은 이기적인 간절함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간절함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얼마나·어떻게 간절한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토틀뉴스 불교포털 부디피아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정관리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 [바라,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 (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 (3개월)
◆ 바라춤 : 요집(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랑계
◆ 49재, 천도익시(시령, 대령, 관옥)
◆ 사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 (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계,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다계작법, 법고춤, 운심계작법, 과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